

인물 분석을 통해 본 영화 〈Minari〉(2020)의 구조와 의미

김미영*

초록 이 글은 리 아이작 정 감독의 〈Minari〉(2020)의 서사 구조와 의미를 인물을 중심으로 살핀 것이다.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미국 시골에서 농장을 개척하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을 그리고 있다. 서사는 아칸소에서 한국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을 일구려는 남편 제이콥과 이산(離散) 없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중시하는 아내 모니카 간의 부부갈등과 한국 할머니 순자와 미국 손자 데이빗 간의 문화와 세대 차를 넘어선 소통과 이해의 과정을 근간으로 한다. 가족서사물에서 인물은 사건을 추동하고 그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는 핵심요소인데, 이 작품에서는 제이콥, 모니카, 순자, 데이빗이라는 4인의 성격과 극중 밸런스가 주제의 구현과 작품의 완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이콥은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면은 있지만,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적인 용기와 성실성을 갖춘 가장으로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한다. 모니카는 아픈 아들의 치료와 가족의 이산(離散)을 막기 위해 어떤 고달픔도 감내하고자 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여성이지만 걱정이 많은 성격이다. 아칸소로의 이주와 농장 개척 문제로 부부는 갈등을 겪지만, 감독의 유년기에 해당하는 아들 데이빗의 시각에서 이들은 분투하는 이민 1세대이자 헌신적인 부모이다. 이 영화의 따뜻함은 일차적으로 부모세대를 향한 이민 2세인 감독의 감사와 존경의 시선에서 비롯된다. 아들 데이빗은 똑똑하고 장난기 많은 소년으로 한국에서 온 낯선 외할머니와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한약, 화투 등 한국문화를 접하며 점차 외할머니를 가족의 일원으로 수용해 간다. 전쟁미망인인 외할머니 순자는 특유의 낙천성과 따뜻함으로 손자와 모니카를 돕고 영화 전반을 밝게 만져 준다. 순자의 치매로 창고에 불이 나는데, 이 영화에서 화제는 결과적으로 제이콥 일가의 이산을 막는 계기로 작동한다. 손자와 외할머니의 티격태격함으로 이주와 동화의 난제를 묘사한 이 영화는 이민자 서사로는 드물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띠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가족애라는 주제가 전면화되면서 <Minari>는 보편적인 가족 서사로 변모해 간다. 결국 이 영화는 미국 내 이민자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 추구과정에서 부딪치는 난관들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며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애의 힘으로 극복해 가는 '이민자 가족 영화'라 하겠다.

주제어 영화 <Minari>, 리 아이작 정, 인물, 이민서사, 가족서사

1. 여는 말

K-pop, K-드라마, K-영화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중에도 BTS의 서울공연은 인터넷으로 세계인에게 공유되었고, 2021년 K-드라마 <오징어게임>과 <지옥>은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다. 2020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 등 네 부문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나, 2022년 칸영화제에서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브로커>, 또 2022년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도 그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극동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크리에이터들의 작업성과에 세계가 연일 놀라고 있고, 한국문화콘텐츠들이 가진 특별한 스토리텔링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¹ 최근에는 해외에서 한국계 이민자나 그 후예들이 창작 혹은 제작에 참여하여 한국계 이민자의 삶을 그린 문화콘텐츠들도 넷플릭스나 애플TV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컨대 한국계 캐나다 작가인 인스 최(Ins Choi, 한국명 최인섭, 1974~)의 연극을 캐나다 CBC 방송국이 시트콤으로 개작한 <김

1 김소리, 「인스 최·제니 한·리 아이작 정…한국계 크리에이터 스포트라이트, 왜?」, 『일요신문』, 2021.3.17.,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5707 (접속일: 2022.2.4.).

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 2016~)은 넷플릭스 드라마 1위에 선정되기도 했고,² 2022년 봄 애플TV가 공개한 8부작 <파친코>(Pachinko)는 한국계 미국작가 민진 리(Min Jin Lee, 1968~)의 동명 장편소설을 tv드라마 시리즈물로 각색한 것으로, 1930년대에 일본으로 이주해 간 제일조선인들이 1980년대까지 자이니치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현상들은 한국을 더욱 친근한 나라로 세계에 알리고, 한민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떨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 살필 영화 <미나리>(Minari, 2020, 플랜B 제작, 미국)³도 이런 흐름 위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한국계 미국감독 리 아이작 정(Lee Isaac Chung, 정이삭, 1978~)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까지 한 이 작품은 한국계 이민자 일가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추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이 영화는 레이건 시대인 1980년대를 배경으로 데이빗이라는 7세 소년을 화자로 내세워, 그의 부모가 아칸소주에서 농장을 개척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포맷으로 전개된다. 이 영화가 기존의 이민자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과 달리 유독 온화한 분위기를 갖는 것은 감독의 부모세대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시선 때문이다. 이민을 선택한 부모가 새 정주지 미국에 안착하기 위해 흘린 땀과 노력, 가족을 위한 헌신에 대해 화자인 소년 데이빗 혹은 그에 없던 감독의 시선에는 부모세대를 향한 Cherish한(고마워하는) 마음이 영화 전편에 산포(散布)되어 있다. 7세 소

-
- 2 토론토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인 캐나다의 현재를 밝고도 재밌게 담아낸 이 시트콤은 시즌5까지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다.
 - 3 미국 빌보드에 자주 오르내리는 K-pop 그룹인 BTS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Beatles와 비슷한 발음이듯, 영화 <Minari>의 제목도 사회적 소수자를 뜻하는 영어 'Minority'와 발음이 유사하다. 리 아이작 정 감독이 한국어 '미나리'에 해당하는 영어 'water parsley'를 제목으로 삼지 않고 굳이 한국어 '미나리'의 영어식 표기인 'Minari'를 제목으로 삼은 데에는 이런 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감독의 이런 판단을 존중해서 이 영화의 제목을 <미나리>가 아닌, <Minari>로 표기한다. 다만, 연구사검토에서는 논문이나 평론의 필자가 쓴 표기를 존중하여 <미나리>로 씀을 미리 밝혀 둔다.

년을 화자로 설정한 이 작품은 이민영화지만 정주국민과 이주민 간의 인종적·문화적 차별로 인한 충돌과 갈등을 서사의 중심축으로 삼기보다는 이민 1세대의 난관과 그 극복을 위한 분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영화는 이민자 가족이 새 정주지에 정착하는 과정에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들을 묶어 주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인 가족애가, 마치 미나리의 뿌리같이, 서로를 이어 주고 있음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어 저예산 영화지만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리 아이작 정⁴ 감독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출생한 한국계 이민 2세이다. 그는 <Minari>(2020)로 세계 영화제들에서 여러 상들을 수상⁵했지만, 이전에 <무뉴랑가보>(Munyrangabo, 2007), <럭키 라이프>(Luck Life, 2010), <아비가일>(Abigail Harm, 2012) 등 3편의 영화로 이미 예술성을 인정받았었다. 대중적인 지명도를 안겨 준 <Minari>는 실제로 그의 아버지가 건국대 축산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 와서 한동안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다가 아칸소 주로 이주해서 배 농장을 개척한 실제 경험담을 기반으로 한다. 시나리오를 그가 한국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에 교수로 와 있던 2018년에 썼다. 당시 그는 이 영화에 자신이 느낀 개인적인 것들을 모두 담겠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⁶

4 리 아이작 정은 예일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유타대에서 영화학 석사를 마친 후, 2007년 르완다 학살 이후 두 소년의 우정을 다룬 영화 <무뉴랑가보>(Munyrangabo)로 영화계에 데뷔하였다. 이후 그는 2010년에 제럴드 스톤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두 번째 영화 <럭키 라이프>(Luck Life)를 만들었고, 2012년에는 한국의 전래동화인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세 번째 영화 <아비가일>(Abigail Harm)을 발표하였다. 리 아이작 정에 대한 정보는 나무위키의 설명 참조.

5 이 작품은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윤여정)을 비롯하여 제74회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제78회 골든 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제36회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6 김성현 기자, 「'미나리' 실제 모델은 지금도 그 농장을 지킨다」, 『조선일보』, 2021년 4월 26일자.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1/04/26/JFIITYPQHJBBTPRRMCZW5OG5UI/(접속일: 2022.3.4.).



[그림 1] 영화 속 가족(왼쪽)과 실제 리 아이작 정 감독의 가족(오른쪽)

이 작품에서 순자 역을 맡은 한국배우 윤여정이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다. 그 때문인지 한국에서 이 작품에 관한 논의는 2021년 상반기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강옥희는 <Minari>는 아메리칸 드림과 개척정신, 신앙을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와 청교도적 구원관을 바탕으로 한 미국식 자본주의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생명력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 평가했다.⁷ 유제우는 <미나리>에 등장하는 ‘미나리밭’과 ‘한인마트 뒤의 공터’라는 공간과 ‘담배’와 ‘물’이라는 오브제가 갖는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⁸ 류재형은 <미나리>의 국적문제에 천착했는데, 영화의 국적에 관한 혼선은 ‘내셔널 시네마’(national cinema)란 개념에서 ‘내셔널’이 상황에 따라 국가나 민족을 상호 교차적으로 가리키는 현실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미나리>는 국가영화로는 미국영화지만 민족영화로는 한국영화라 주장하였다.⁹ 안미영은 이 영화에서 가장(家長)인 제이콥이 마치 종교집단의 제사장

7 강옥희(2021), 「이산·동화·개척의 서사: <미나리>」, 『국제한인문학연구』 30호, p.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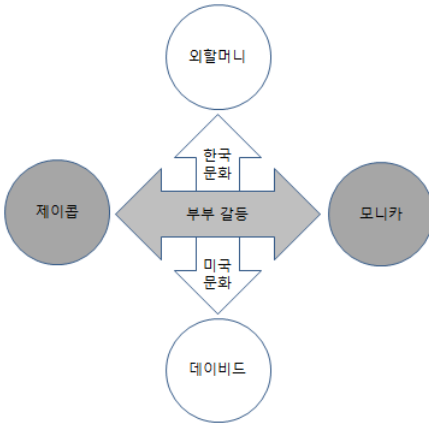
8 유제우(2021), 「영화 <미나리> 속 ‘공간과 오브제’의 이미지 상징」, 『글로벌 창 의 문화연구』 10(1), 글로벌창의산업연구센터, pp. 87-96.

9 류재형은 대사의 80%가 한국어로 처리되어 ‘한민족영화’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작품을 끌든 글로벌 홈페이지는 제작사의 국적을 근거로 미국영화로 적시함으로써 이 작품이 끌든 글로벌에서 비영어권 영화에 수여되는 가장 큰 상을 수상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면서 여기에 끌든 글로벌 주최 측의 인종차별적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류재형(2021), 「<미나리>의 국적성과 내셔널 시네마」, 『영상기술연구』 36, pp.

과 같이 일가의 구심점으로 가족신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미국 이민자의 정착과정을 보여 주지만 깊게는 인간이 타자와 협력함으로써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주었다고 분석하였다.¹⁰ 또한 이 작품에 숨어 있는 기독교적 상징성을 분석한 강성률은 <미나리>는 성경에서 이삭의 아들 Jacob 즉, 야곱의 서사일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¹¹ 한편 안수환은 <미나리>의 음악을 분석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신성(神性)을 상징하는 검은 건반 조성(D-중심성)의 음악과 인간성(人間性)을 상징하는 흰 건반 조성(C-중심성)의 음악이 대립하면서 내러티브를 소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¹² 최근에 최영희·유봉근은 발터 벤야민의 『일방통행로』에 수록된 에세이에 기반해서 한국계 미국 이민자 2세인 정이삭 감독은 자신만의 ‘신속한 언어’(Prompte Sprache)인 자전적 영화 <미나리>에서 벤야민식 사유인 ‘확신’과 ‘사실’ 사이를 오가는 배치와 조합으로 한 가족의 삶을 추동하는 힘과 미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 가족의 열망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감독 자신의 유년기를 영화화함으로써 할리우드 영화계에 정착하려는 감독으로서의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였다고 분석하였다.¹³ 또한 강나경은 영화 <미나리>(2020)에 할리우드가 ‘이례적으로’ 여우조연상을 수여한 것은 ‘Generous Judge’ 즉 관대한 문화 심사자의 위치에 선 미국 백인 사회가 아시아 여성을 향한 제국주의적 응시와 남성적 응시의 공모를 통해 타자화함으로써 잃어버린 자신들의 남성성을 되찾

165-166.

- 10 안미영(2021), 「영화 <미나리>에 구현된 ‘가족 신화’ 분석: 토포필리아의 구현과 가장(家長)의 수행성」, 『비평문학』 81, pp. 99-126.
- 11 강성률(2021), 「기독교적 토대 위의 <미나리>」, 『Korean Film Critiques』, 한국영화평론가협회, 2021.12., pp. 93-95.
- 12 안수환(2021), 「영화 <미나리>에 병존하는 신성(神性)과 인간성: 영화 속 다중 매체 간 상호작용」, 『서양음악학』 24(2), pp. 177-200.
- 13 최영희·유봉근(2022), 「자전적 영화로서 정이삭의 <미나리>(2020) 연구: 벤야민의 ‘삶을 구성하는 힘’ 개념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5(1), pp. 209-240.



[그림 2] 영화 <Minari>의 서사 구조

으려는 시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적 분석을 내어놓기도 하였다.¹⁴

이 글은 이상의 연구 성과들을 대체로 수용하면서 <Minari>의 주요 인물인 제이콥, 모니카, 순자, 데이빗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서사의 구조와 작품의 의미를 꼼꼼히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제이콥-모니카 부부의 수평적인 갈등과 순자-데이빗의 수직적인 조손 간 상호 적응과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서사가 구성되어 있다.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의 갈등은 이민자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 추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보여 주고, 데이빗과 순자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세대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담아낸다. 전자를 근간으로 하고 후자를 방계로 배치한 이 작품의 서사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데이빗과 외할머니의 대립은 제이콥과 모니카의 부부갈등이 지닌 심각성을 완화시켜 주고 영화의 분위기를 밝게 하며 관객에게 영화를 보는 소소한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14 강나경(2022), 「할리우드의 제국주의적 응시: 영화 <미나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 연구』 15(1), pp. 123-146.

2. 제이콥과 모니카의 부부갈등에 나타난 서사의 설득력

영화에서 행위를 통해 서사를 구현하는 주체는 등장인물이다. 영화나 문학 같은 서사물에서 인물은 스토리를 구현함으로써 작가의 중심 생각인 주제를 가시화한다. 가족이야기를 다룬 서사물에서 특히 인물의 성격은 사건을 구성하는 열쇠나 동력이 되며, 동시에 사건은 인물의 성격을 구성하거나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즉 가족이야기를 다룬 “서사는 인물이 행한 행위 중에 표현을 얻는 성격(character)에 의해 구성된다.”¹⁵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족은 한 사람의 성격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족서사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관계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흔히 가족 간의 갈등 구조에서 가족 서사의 기본 골격이 구성되며,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드러나거나 구성되기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화는 소설과 달리 생각이나 감정 등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해서 영화에서는 대개 주인공의 내면을 그와 대립하는 대비자(foil character)를 통해 드러내곤 한다.¹⁶ 여기서 대비자란 주인공의 성격과 길항관계에 있는 캐릭터로, 주로 성격이 상반되거나 상충되는 인물이 이에 해당한다. 부부갈등을 그린 영화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대비자가 되기도 한다.

《Minari》의 서사에서 주된 대립의 주체는 제이콥과 모니카이다. 이들은 각기 타당한 입장을 지니고 있어 둘의 갈등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관객은 거기에 쉽게 설득된다. 제이콥은 모험적인 도전을, 대비자인 모니카는 가족의 안녕과 안정적인 생활을 중시한다. 이런 설정은 이 영화의

15 로버트 솔즈·로버트 켈로그 저, 임병권 역(2001), 『서사의 본질』(The Nature of Narrative), 예림기획, 2001, pp. 223-224.

16 이종혁(2020), 「영화에서 주제와 인물의 상관관계 연구: 극영화의 주관적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p. 42.

배경인 1980년대의 다소 보수적인 남녀관에 부합하고 있다. 이 영화의 첫 시퀀스는 제이콥이 운전하는 이삿짐 트레일러¹⁷가 앞장을 서고, 모니카가 승용차에 자녀들을 태우고 그 뒤를 따르며 아칸소주로 이사 오는 장면이다. 미국인이면 누구나 겪었을 경험을 형상화한 장면(scene)인데, 이민자로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도 그렇겠지만, 완전히 안착할 곳을 찾을 때까지 거대한 미국 땅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이민자들은 유타(U-Haul)이나 트레일러를 끌고 self 이사를 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이콥 일가가 도착한 아칸소주의 시골 땅 위에는 덩그렇게 트레일러 하우스가 놓여 있는데, 이 트레일러 하우스는 1970년대 초에 이주하여 1980년대인 현시점까지도 완전히 정주할 곳을 찾지 못한 제이콥 일가의 난민 같은 불안정한 삶을 상징한다.

제이콥과 모니카의 갈등은 트레일러 하우스를 본 모니카의 불안한 표정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다. 모니카가 트레일러 하우스에 첫발을 내디딜 때 제이콥의 손을 뿌리치는데, 이 장면은 아칸소로의 이주가 제이콥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며, 이로써 제이콥의 가부장적인 일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트레일러 하우스를 보고 당황해하는 모니카와 달리, 제이콥은 50에이커나 되는 기름진 아칸소 땅에 에덴(eden) 같은 가든(garden) 혹은 농장(farm)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들떠 있다. 영화 중반에 제이콥이 농장에서 수확한 한국채소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마트에 납품하기로 한 일이 어긋나는 전화 통화 장면이 나오는데, 통화를 마친 제이콥은 “Korean people, big city, We never trust them!”(한국인들! 대도시! 난 그들을 절대 믿지 않아!)라며 혼잣말을 한다. 이 대목은 그가 미국 대도시의 한인사회에서 배

17 데이빗의 시각에 의존한 이 첫 시퀀스에서 제이콥이 운전하는 트레일러의 뒷면에는 리 아이작 정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 많은 영감을 받았노라 밝힌 『나의 안토니아』(My Antonia, 1918)의 작가 윌라 캐더(Willa Cather)의 이름이 적혀 있다. 조지영(2020), 「[25th BIFF] ‘미나리’ 감독 “자전적 이야기, 소설 ‘마이 안토니아’ 영감받았다”」, 『스포츠조선』, 2020. 10. 23., https://m.sportschosun.com/news.htm?id=2020102301001828001012336&ServiceDate=20201023#_ace(접속일: 2021.3.7.).

신을 당한 쓰라린 경험이 이미 있음을 말해 준다. 또 트레일러 하우스 안에서 모니카와 다투는 장면에서는 모니카는 도시 여자이고 제이콥은 시골 출신임이 드러난다. 이런 장면들에서 관객은 제이콥이 한인이 많지 않은 한적한 시골인 아칸소 주를 선택한 이유를 추론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대도시에 거주하기를 선택하는데, 이 영화에서 제이콥 일가는 정치적, 혹은 종교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미국 중부 시골에 정주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의 안착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이콥이 아칸소에 농장을 일구고자 함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위험(risk)을 지고서라도 모험을 시도하는 것을 남자의 일로 믿기 때문이다. 병아리 농장에서 쉴 때 제이콥은 아들 데이빗에게 감별된 수평아리들을 폐기(discarded)하는 것에 대해 말해 주었다. 감별사는 수평아리를 골라내는데, 수평아리는 달걀을 생산할 수도 없고 고기 맛도 좋지 않으며, 성장 속도까지 느려 사료비만 축내는 존재이기에 일찌감치 가려내어 소각하기 위함이다. 이런 분류를 컬링(culling)이라 하는데, 감별사의 손에 골라내어져 죽음을 맞는 수평아리가 미국에서만 1년에 60억 마리가 넘는다고 한다.¹⁸ 수컷은 ‘discarded’(폐기)되지 않으려면 ‘useful해야’(쓸모가 있어야) 하기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모험에 나서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전언은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모니카와 다투는 장면에서 제이콥은 이주 후 10년 이상을 병아리 감별을 해 온 자신이 앞으로도 평생을 어두침침한 지하실에서 병아리 똥꼬만 들여다보며 살 수는 없다고 외치는데, 이도 그가 농장에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다. 부부갈등의 시발점인 제이콥에 의한 아칸소 주(州)로의 이주와 농장 개척은 남성 가장의 도전으로,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높이 평가되는 개척자 정신과 용기가 필요한 아메리칸 드림

18 김중식(2021), 「병아리 감별사 직업,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남다.」 『융합경영리뷰』 25, p. 31.

의 추구이기도 하여 <Minari>에서 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제이콥의 ‘에덴동산’에의 꿈은 성취가 쉽지 않은 도전임이 도처에서 암시되고 있다. 그가 매입한 땅의 이전 소유자인 ‘버키 리드’라는 남성이 바로 이 땅에서 농장을 일구고자 했다가 실패하여 권총 자살한 적이 있는데, 이는 아들 데이빗이 교회에서 사귄 조니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의 아빠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그려진다. 또 제이콥이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은행원은 누군가 실패한 땅이어서 원하는 사람이 없어 헐값에 나온 그 땅을 매입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제이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다. 수맥 찾는 일을 도와주러 농장에 온 백인도 이전 주인이 이 땅에서 농장에 실패한 것은 수맥을 찾는 데에 돈을 아꼈기 때문이라 하였다. 제이콥의 농장 일을 돕는 백인 이웃인 폴(Paul)도 제이콥의 땅에는 좋지 못한 기운이 있다면서 엑소시즘(exorcism)을 위한 통성기도를 자처하기도 하였다. 이런 정황들에서 제이콥의 도전이 무모한 것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모니카의 불안은 설득력을 갖는다.

제이콥은 이주민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 전체의 미래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바, 폴은 그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 장담하며 그를 격려한다. LA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일할 때 제이콥은 속도가 빨라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장남인 그는 친가의 부모와 형제들을 돕는 데에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 이는 모니카와의 다툼 장면에서 드러난다. 그동안 제이콥은 한국식 장남 역할에 충실해 온 것이다. 이런 대목은 한국 관객에게 이들 부부의 갈등에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든다. 형제들이 모두 자리를 잡아 가는 만큼,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새로운 ‘start’(출발)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한 제이콥은 가족을 위한 아메리칸 드림으로 기름진 아칸소의 땅에 Eden(에덴) 같은 Garden(정원)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매년 3만 명씩 새로 이주해 오는 한국계 이민자들을 위해 한국 채소를 재배하는 농장을 개척함은 미국 농부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시골 출신

인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해외 이주는 그 자체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모험적인 도전으로, 평생 쌓아 온 사회적 제 관계들을 포기하고 낯선 언어와 문화의 극복이라는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선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의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전면적인 새로움에의 부딪침인 것이다. 이주 초기의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을 위해 별다른 기술이나 유창한 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병아리 감별사는 청소부, 세탁 일, 식당 주방 보조 등과 함께 이민자들이 이주 초기에 많이 선택하는 일인데,¹⁹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언어나 문화에서 불편함이 덜해지면 이들은 이주의 원래 목적인 아메리칸 드림에 도전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이콥의 농장 개척은 nothing(無)에서 무언가를 일구어 가는 이민자 삶의 핵심을 보여 주는 지점인 셈이다. 도전과 모험의 정신이 없었다면 제이콥은 이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서 제이콥과 모니카의 삶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낯선 나라로 이주하는 것보다 익숙한 조국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이콥의 농장 개척 서사 부분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관객들에게 특히 많은 공감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

이 작품에서 제이콥은 덜 사교적인 성격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제이콥 일가가 미국교회에 간 장면에서 알 수 있다. 앤과 데이빗은 낯선 동양인인 자신들에게 백인 아이들이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조금 해도 금방 백인

19 1950~1970년대 한국의 해외 이민자들은 새 정주지에서의 취업을 위해 병아리 감별사 자격증을 이주 전에 한국에서 많이 취득하여 갔다. 당시에는 서울, 부산 등에 학원이 있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부산일보』 1970년 5월 22일자에는 '인기 수출 용역 병아리 감별사'라는 관련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박종호, 「병아리 감별사」, 『부산일보』 2021년 3월 17일자 기사 참조.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718520946271> (접속일: 2022.7.10.) 하지만 최근 2000년대 이후는 초기 기반을 잡는 시기에 한인 이민자 1세대는 청소, 세탁소, 한인식당이나 한인마트, 자동차 정비 등의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상희(2017), 「미국이주 한인가계의 재무적 과제와 극복 경험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3(3), pp. 195-196.

아이들과 어울린다. 특히 데이빗은 그날 새로 사귄 백인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와도 되냐고 엄마 모니카에게 물을 정도로 사교적이다. 영어가 서툰 모니카도 초면인 백인 여성 교인들과 인사 정도는 나누는데, 제이콥은 백인 교인들과 전혀 교류하지 못하고 혼자 어색하게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병아리 농장에서도 모니카는 옆자리의 한국 아줌마와 쉽사리 말문을 트지만, 제이콥은 동양계 노동자뿐인 그곳에서조차 아무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제이콥은 중고 트레일러를 가져다주러 온 백인 풀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지만,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동네 아이들에게 ‘cross guy’(십자가 남자)로 놀림을 당하는 풀에게도 쉽사리 걸을 주지 않는다. 이는 모니카가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할 풀을 불편하게 대하고, 또 풀을 초대할 모니카를 타박하는 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로서 제이콥은 가부장적인 한국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드러낸다. 이는 데이빗을 훈육할 때 한국식 체벌(회초리)을 하려는 장면에서 잘 보인다. 다소 고집스럽기도 한 그는 풀이 한국 작물이지만 아칸소에서 재배하니 아칸소식 농법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것에 저항하기도 한다. 또 농업용수로 쓸 수맥을 찾을 때에도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는 자기방식을 고집한다. 농장에 델 물이 부족하자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사용하는 시(市)의 상수를 끌어다 써서 트레일러 하우스가 단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모니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제이콥은 창고의 화재를 겪고 난 후엔 아칸소 주민이 추천하는 수맥 찾는 방법을 수용한다. 이렇듯 그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 한국식 농법과 아칸소식 농법을 절충하는 등 조금씩 현지 문화에 동화되어 간다.

정리하면, 제이콥은 아칸소주로의 이사를 혼자 결정하는 등 다소 독단적인 남편이고, 체벌로 자녀를 훈육하는 등, 다소 가부장적인 한국식 아빠이며,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친화력이 있는 편도 아닌 인물로, 자기방식을 고수하는 고집스러움까지 지닌 인물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는 매우 성실하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험을 감행하는 용기를 지닌 가장이다. 이 작품에서 제이콥의 농장 일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들 데이빗인데, 데이빗은 병아리 농장에서 아빠에게서 수평아리의 비애와 쓸모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길 들었고 조니의 아빠로부터는 ‘버키 리드’의 자살 사건과 male(남자)의 역할²⁰에 대해 들었기 때문인지, 혹은 남자로서 아빠에게 어떤 연대의식을 느껴서인지, 처음부터 아빠의 농장 일을 지지하고 트레일러 하우스에서의 생활도 좋아한다.

한편, 제이콥의 대비자로서 모니카는 제이콥의 시도가 무리해 보여 불안하고, 무엇보다 데이빗의 안정적인 치료와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위협하는 제이콥의 독단적인 선택에 화가 나고 지쳐 있다. 모니카는 아칸소에서 농장을 일구기보다 큰 병원이 있는 도시에서 부부가 함께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며 살기를 원한다. 트레일러 하우스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의 병원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웃도 없는 외진 곳에 있어서 부부가 병아리 농장에서 일하는 낮 시간에 아이들을 맡길 곳도 마땅치가 않다. 한인교회조차 없어 아이들이 한국 친구들과 놀 수도 없고, 식료품 등을 살 마트나 쇼핑할 곳도 멀어 생활도 불편하다. 게다가 토네이도(tornado)가 닥치면 트레일러 하우스가 통째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등 가족의 기본적인 안전까지 위협받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모니카는 불안하기만 하다. 부족한 농업용수로 트레일러 하우스의 물을 끌어다 써서 트레일러 하우스가 단수되는 일상적인 불편함도 문제이고, 농장 때문에 은행 대출이 늘어 빚이 많아지는 것도 걱정이다. 데이빗에게 적절한 병원이 있고, 아이들을 맡길 만한 곳도 있는 지역에서 부부가 함께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면 빚도 청산할 수 있고 생활도 안정될 터인데, 아픈 아들까지 있는 처지에 굳이 리스크(risk)를 안고 모험을 시도하려는 제이콥이 모니카로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

20 아침 식탁에서 조니의 아빠는 데이빗에게 아칸소에서 남자가 농장을 개척하다 실패하면 죽기도 하지만, “I guess man does.”(남자는 그래야 하는 것 같아.)라며 모험적인 시도야말로 남자의 일이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로 보인다. 제이콥은 농장 개척이 가족을 위한 도전이라 말하지만 그 대가가 가족의 이산(離散)일 수도 있기에 모니카는 제이콥의 주장에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다. 모니카의 우선순위는 가족의 이산을 피하는 것과 데이빗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모니카의 불만은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데이빗의 심장병을 검진 받고, 또 제이콥의 농장 수확물을 한인 마트에 팔기 위한 판로 개척에 나선 날에 최고조에 달한다. 데이빗의 검진을 마친 후 전 가족이 의사 면담을 기다리는 병원 복도 벤치 장면에서 부부갈등은 전면화된다. 제이콥과 모니카는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원해 주자며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민 생활의 고달픔과 어려움으로 부부싸움이 잦아 보니 아들이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닌가 싶다며 제이콥이 먼저 운을 떼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농장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할 것이라 말한다. 데이빗의 검진실에 까지 농작물 박스를 들고 온 그의 행동은 그런 그의 의지를 시각화하고 있다. 농장을 향한 제이콥의 의지가 꺾을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모니카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가려면 제이콥과 헤어져 살 수밖에 없음을 절망한다. 마침 의사는 데이빗의 병세가 호전 중이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것을 바꾸지 않는 것이 데이빗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다. 기쁘면서도 모니카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고 복잡한데, 이런 장면들에서 모니카 역을 맡은 배우 한예리는 감정표현에 검약한 동양 여성을 매우 적절히 연기하고 있다. 한예리는 영화 내내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제이콥을 포근하게 안아 주기보다 그와 대립각을 세우는, 다소 지친 이민자 아내의 모습을 잘 표현하여 제이콥의 도전을 더욱 외로운 작업으로 보이게 하여 갈등의 중심축을 선명히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모니카는 데이빗의 병이 호전됨을 확인하고, 한인식료품점에 농장 수확물을 납품하기로 결정된 후에야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표출한다. 오클라호마시티의 한인식료품점 주차장 장면이 그것이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모니카는 지금은 괜찮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

다고 생각하는 제이콥에게 자신이 지쳤음을 밝히고 그런 그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니카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함께 있음’과 ‘서로를 돌봄’을 가족의 본질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니카는 상황에 따라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의 상황이란 결국 경제적 여건을 뜻하는 것일 터이므로, 그럼 돈은 우리를 구원해도 우린 서로가 서로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이나며 제이콥에게 따진다. 듣고 섰던 제이콥의 심경은 무겁고도 슬픈데, 이는 그의 젖은 눈과 복잡하고 어두운 표정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오클라호마시티로 오는 차 속에서 운전대를 잡은 제이콥은 데이빗의 심장병이 악화되고 농작물 판로 개척이 안 되면 결혼생활이 위기를 맞을 것 같아서 불안한지 결혼한지를 매만졌다. 하지만 두 가지 불일이 모두 순조롭게 풀려 내심 안도했는데, 모니카의 불만 토로는 그를 다시 속수무책으로 만든다. 이 장면(scene)에서 “됐다.”라고 내뱉으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눈물과 함께 삼키는 제이콥의 굳은 표정은 관객에게까지 깊은 슬픔을 전염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런 장면들에서 모니카는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땐 표현을 억제하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속내를 감추지 않고 피력하는 강단 있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병아리 감별사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밤에 연습까지 할 정도로 일상에 성실한 여성이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단순 반복적인 병아리 감별사 일과 집안일 모두를 평생 기꺼이 감당하려는 그녀는 책임감 있는 엄마이자 아내이다. 그런 모니카의 불안과 걱정은 나름 합리적인 것이어서 관객을 흡입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영화의 중반까지 모니카와 제이콥의 갈등은 좁혀질 기미를 좀체 보이지 않는다. 대립 속에서도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음을 알기에 모니카는 데이빗을 위해 쓸 돈만 남겨 두면 제이콥의 농장 일을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물러섰고, 제이콥은 독실한 기독교인인 모니카의 외로움을 달래 주기 위해 교회에 다녀 볼까도 했던 것이다. 교회가 안 맞아 결국 제이콥과 모니카는 주말에도 일을 하기로 하고 아이들만 교회에 보내게 되지만 말이다. 그러나 순자의 치

때로 모니카가 아이들과 어머니를 병원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둘의 대립은 다시 첨예화된다. 그런데 해결점이 보이지 않던 이들의 갈등은 의외의 계기로 허물어지는데, 창고 화재가 그것이다. 감독은 제이콥과 모니카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에서 인간은 최선을 다할 뿐,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고 그에 따르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살짝 내비치고 있다. 사고(accident)인 화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제이콥의 곁을 모니카가 지키게 되었고, 이로써 제이콥과 모니카의 갈등은 봉합되기 때문이다.

3. 순자와 데이빗의 문화와 세대 차를 넘어선 상호 적응 과정

누구도 경계하지 않는 존재인 어린 아이와 나이든 할머니가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간극과 세대 차를 좁혀 가며 서로의 낯섦을 극복하고 친밀해져 가는 과정으로 이(異)문화 간 소통과 동화의 문제를 그린다면 관객은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를 덜 심각하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Minari>에서 이주와 동화의 형상화는 이렇듯 미국 아이와 한국 할머니의 장난기 가득한 대립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제의 부담감을 거둬 내는 이런 설정은 초반부 제이콥과 모니카 간 대립의 긴장감을 휘발시키고 작품의 분위기를 편안하고 사랑스럽게 순화시킨다.

앤과 데이빗을 돌봐 주러 한국에서 온 모니카의 엄마 순자는 한국전쟁의 미망인이라는 다소 무거운 이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그녀는 특유의 낙천성과 여유로움으로 서사의 무거움을 덜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이 영화에서 제이콥의 농장이나 데이빗의 심장병에 대해 늘 불안해하는 모니카와는 달리, 순자는 매사에 낙관적이어서 모니카의 좋은 대비자가 된다. 데이빗은 외할머니를 닮아 장난기가 많고 푹푹한데, 영어가 서툰 외할머니가 그에게 “pretty boy”라고 하자 “good looking”으로 정정해

주기도 하고, “소변은 어떤 맛이예요?”라며 외할머니를 골려주기도 하면서도, 서랍장이 쏟아져 다친 자신을 치료해 주는 등 자신을 돌봐 주시는 할머니의 사랑을 점차 깨달아 간다. 손자는 간식을 만들 줄 모르는 등 요리엔 쟁쟁이지만 화투놀이 좋아해 그것을 손자에게 가르쳐 준다. 프로레슬링 선수들의 시합과 같은 TV 프로그램을 즐기며, 짧은 실력이지만 영어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트레일러 하우스 생활도 재밌어하는 등 이(異)문화에의 적응력이 뛰어난 노인이다. 즉 그녀는 프로토타입(prototype)화된 한국 할머니는 아니다. 이채롭게도 그런 그녀가 오히려 이 영화의 리얼리티를 배가시키고 있다. 아픈 손자를 위해 한국에서 한약을 지어 왔고 딸을 위해 고춧가루와 멸치 등 한국 식재료들을 챙겨 왔으며 어렵사리 벌었은 돈을 딸에게 아낌없이 주는 집에서 그녀는 영락없는 외할머니이자 친정엄마이다. 홀로 딸을 키우느라 신산한 세월을 살아왔을 터임에도 그녀는 의외로 딸네 가족에게 편안하게 스며들고 영화의 흐름까지도 자연스럽게 여유 있게 변모시키고 있다.

한편, 데이빗은 쿠키도 못 만드는 외할머니가 낯설기만 하다. 그녀와 방을 공유하게 된 데이빗은 할머니에게서 ‘Korean smell’(한국 냄새)이 난다며 “Grandma smells like Korea.”(할머니에게선 한국 냄새가 나.)라고 말하며 그녀를 꺼린다.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쓴 한약에 꼴이 난 그는 외할머니께 자신의 소변을 ‘산이슬물’이라 속여 먹게 만든다. 그 일로 그는 아빠 제이콥에게 혼이 난다. 하지만 밖에 나가서 회초리를 구해 오라는 아빠의 말에 그는 토끼풀을 뜯어와 위기를 모면한다. 그는 잠자리에서 오줌을 싸 젖어 버린 속옷을 침대 밑에 감추는 등 장난꾸러기이자 피돌이이다. 하지만 외할머니도 그에 못지않게 피가 많아, 교회에서 데이빗의 백인 친구 앞에서 데이빗이 밤에 오줌을 싼 일을 들어 “broken ding dong”(고춧가루 고장 나서)이라고 말하며 데이빗을 놀려 주기도 한다. 또 앤과 데이빗이 ‘weird grandma’(이상한 할머니)라고 말한 것을 “You like grandma. Thank you.”(너희들이 할머니를 좋아한다고? 고맙구나!)라며 능청스레 왜곡시켜 받아들여 앤과

데이빗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위트를 지닌 할머니와 장난꾸러기 손자의 조합은 영화 〈Minari〉 서사의 또 다른 한 축이다. 〈Minari〉에서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가 평행선을 그리는 수평적 관계라면, 순자와 데이빗은 조손(祖孫) 간 내리사랑인 수직적 관계인데, 이 4인의 밸런스가 작품의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이 영화는 인물 형상화에서 전형성을 탈피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리얼리티를 획득하는 리 아이작 정 감독의 연출전략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감독은 배우의 개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배역을 소화하게 하여 배우 자체의 캐릭터와 극 중 배역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물이 창조되도록 연출을 하고 있다. 제이콥을 연기한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이나 모니카를 연기한 한국 배우 한예리는 전형적인 한국의 아빠나 엄마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타입(type)들이다. 이 작품에서 한예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나 가정주부보다는 오랜 직장생활에 지친 고참 커리어우먼 같은 이미지를 하고 있다. 초반부에 자주 보이는 그녀의 경직된 표정이 특히 그런 분위기를 주도한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뒤로 묶은 마른 체형의 모습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 냄새를 폴폴 풍기는 따듯하고 보드라운 주부나 엄마의 이미지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 하지만 모니카를 연기한 한예리는 동양 여성의 정갈함과 검약함, 감정 질체를 잘 표현하며, 똑똑하고 지혜로운 동양여성을 묘사함에도 썩 잘 어울린다. 제이콥으로 분한 스티븐 연은 에덴(eden)이나 농장(farm)이란 단어를 지나치게 미국적으로 발음해서 한국계 이민 1세대란 설정에 잘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의 인상은 농장을 일구려고 퇴약벌에서 거친 밭일을 매일 하는 찌든 가장보다는, 좀 더 세련된 도시 남자 같은 이미지에 가깝다. 하지만 스티븐 연 역시 이 작품에서 빨간 야구 모자를 쓴 자신만의 제이콥을 잘 창안하여 묘사해냄으로써 독특한 이 작품만의 리얼리티를 살리는 데 제 몫을 다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 외할머니 순자의 등장은 실질적으로 서사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에 해당한다. 트레일러 하우스에 들어서는 장면에서부터 윤여

정의 자연스런 연기는 스티븐 연과 한예리가 연기한 초반부의 경직된 분위기를 가볍고 누그러뜨린다. 이후 윤여정의 여유롭고 리얼한 연기는 영화 전반에 느긋함과 따듯함을 덧입힌다. 그녀가 연기한 순자는 바퀴 달린 집을 재밌어하고 화투놀이를 하면서 욕도 잘하고, 산에서 가져온 산이슬물을 좋아하며, 영어 배우기를 재밌는 게임쯤으로 여기는 색다른 할머니다. 농장 때문에 빛이 많아지는 등 형편이 어려워지자 딸 모니카가 자신이 가족을 먹여 살리겠노라 장담하는 장면에서 순자는 “너무 애쓰지 마.”라며 그런 모니카를 오히려 위로한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기보다는 일터에서 돈을 벌었을 전쟁미망인이자 홀어머니인 순자는 녹록지 않았을 삶에 지칠 법도 하지만 유머와 낙천성을 잃지 않은 개성 넘치는 캐릭터의 할머니다. 그녀는 후반에 치매를 앓아 의도치 않게 창고(barn)에 불을 내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농장의 첫 수확물을 번제(燔祭)로 하늘에 바친 일이 되고,²¹ 제이콥과 모니카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로 작동해 그녀는 결국 해법이 보이지 않던 딸네 부부의 갈등까지 종식시키는 인물이 된다.

낙천성이 순자의 성격적 특징이라면, 데이빗은 철없는 장난꾸러기 소년이다. 아빠 제이콥과 함께 수맥 찾기에 나선 그는 물을 좋아하는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수맥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제시한 후 “머리를 썼지.”라고 말하여 아빠를 만족시키는 대목이나, 밖에 나가 회초리를 구해 오라는 아빠의 말에 역새풀을 구해 와 외할머니로부터 “네가 이겼다.”라는 말을 듣는 장면에서 총명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외할머니께 배운 화투를 조니에게 가르쳐 주어 함께 놀기도 하고, 외할머니와 함께 개울에서 미나리밭을 일굴 터를 물색하기도 하며, 트레일러 하우스에 물이 나오지 않자 개울가에 가서 할머니와 함께 물을 길어 오기도 한다. 한국계 이민 2세로 미국 소년인 데이빗은 외할머니로부터 한약, 화투 등의 한국문화를 익히고, 주말에는

21 강성률(2021), 「기독교적 토대 위의 〈미나리〉」, 『영화평론』 33, 한국영화평론가협회, p. 95.

누나 앤과 함께 교회에 가서 백인 친구와 사귀며 조니의 집에서 카우보이 놀이를 하는 등, 한국과 미국 문화를 동시에 습득한다. 순자는 원래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면서 데이빗의 심장병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 선천적 심장병으로 뛰지 못하는 데이빗에게 순자는 “데이빗아, 너는 스트롱 보이(strong boy)야.”라며 용기를 주기도 한다. 또 자신의 심장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데이빗이 어린 나이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자 순자는 그런 순자를 꼭 안아 재우며 “네가 죽도록 내가 내 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데이빗을 안심시킨다.

이 작품에서 순자는 모니카와 제이콥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중재자이기도 하다. 딸과 사위가 다투어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질 즈음, 마침 한국 TV에서 <사랑해 당신을>이라는 가요가 나오는데, 그때 순자는 그것을 계기로 두 사람이 한국에서 연애할 때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일깨워 준다. 결정적으로 순자가 창고(Barn)에 낸 화재는 모니카로 하여금 제이콥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 제이콥 일가가 이산가족이 되는 것을 막는 역할까지 한다. 모니카가 아칸소를 떠나지 않게 된 데에는 아칸소로 온 후 데이빗의 심장병이 호전되었고 그로 인해 환경이든 뭐든 바꾸지 말라고 한 데이빗의 담당 의사의 소견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창고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제이콥을 혼자 두고 모니카가 떠날 수 없게 된 점도 분명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순자는 이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손자 데이빗에게 한약을 지어와 먹이고 병을 이겨 내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며 끝까지 그를 지켜줄 것을 약속해 데이빗을 안심시키는 등 데이빗의 병세 호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베이비시터로서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제이콥과 모니카를 도왔고, 창고 화재로 이 가족의 이산을 막았다. 작품의 제목이자 중요한 상징이기도 한 미나리를 한국에서 가져와 아칸소 땅에 이식한 사람도 순자이다. 결국 영화 <Minari>에서 순자는 위트와 따뜻함과 여유로움으로, 자신의 행복보다 딸 가족의 행복을 위해 표 나지 않게 자신의 여생을 바쳐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적인 한국 어머니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 주는

캐릭터이다.

이 작품에서 창고에 불을 낸 순자가 냇을 잃고 집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에서 데이빗과 앤이 달려가 그녀를 불러 세워 함께 집으로 가고 말하는 대목은 아이들이 이제 외할머니를 온전한 가족의 일원으로 수용하게 되었음이 보여 준다. 불을 다 끈 후, 온 가족이 트레일러 하우스 바다에 널브러져 팔과 팔로 서로를 이어 감고 잠든 모습은 물가에 미나리가 어우러져 자라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영화의 제목인 ‘Minari’는 ‘Minority’인 이민자를 연상시키는 발음인데, 이 장면은 이미지로서도 그러하다. 이를 지켜보는 외할머니 순자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히고, 이어 제이콥 일가의 지나온 여러 순간들을 포착한 가족사진들이 차례로 화면에 잡힌다. 이는 한국에서 모니카와 제이콥이 ‘꿀물’ 떨어지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해 당신을>을 불렀을 신희 시절이나, 서로를 구원해 주자며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또 아칸소로 이주하여 농장을 개척하는 현재까지 이들에게는 한결 같이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에 미래가 희망적임을 말해 주는 듯하다. 창고에 난 불을 끌 힘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함께 널브러져 잠든, 미나리 같은 얽힌 가족이 있기 때문임을 이 장면은 웅변하고 있다.

이민자(Immigrants), 기독교인(Christians), 농부(Farmers)의 삶이 중첩된 이 영화의 제목을 <Minari>로 한 것은 리 아이작 정 감독이 자신의 할머니가 아칸소주 농장에서 실제로 미나리를 재배한 경험 때문이라고 말하였다.²² 미나리는 식재료일 뿐 아니라 약재로도 사용되고 물을 정화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물이다. 영화의 결말 부분에 외할머니가 미나리는 아무 데서나 쑥쑥 잘 자란다고 말한 것은 이 가족이 아칸소주에 잘 안

22 KBS, <다큐 인사이트 1회 윤여정 편>, 2021.4.29. 방영분 내용 중. 실제로 리 아이작 정의 할머니는 한국에서 종자를 가져와 아칸소주에 심었는데, 다른 식물들은 모두 시들어 죽었으나 개울가 덩불에 씨앗만 뿌려 놓았던 미나리는 서바이벌에 성공했다고 한다 [“Katie Couric Interviews the Director and Star of “Minari”], <https://www.youtube.com/watch?v=6yDOUXU9m1M>(접속일: 2022.1.30.)].

착하여 순조로운 미래를 맞을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이런 밝은 미래의 원동력은 가족의 중심인 남편 제이콥과 아내 모니카의 근면 성실함과 가족애, 서로를 돌보는(caring) 사랑의 마음과 현지에서의 동화력 등에서 비롯된다. 이 작품에서 제이콥과 모니카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이들은 낮에는 함께 병아리 농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모니카는 집안일을, 제이콥은 농장 만드는 일을 한다. 밤이면 모니카는 병아리 감별을 더 잘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제이콥은 창고나 농수로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면을 그리는 등 늦게까지 깨어 일한다. 은행 빛에 시달리는 가난한 이 부부가 하고 있는 병아리 감별 일은 닭털 뽑기와 마찬가지로 이민자들이 초기 정착금 마련이나 영주권 획득을 위해 하는 3D 직종의 하나이다. 미국인들이 꺼리는 노동이기는 농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제이콥이 선택한 작물은 한국 이주민들에게 고국의 맛을 선사하기 위한 한국 채소들로, 이는 미국 농부들과 경쟁하는 품목이 아니다. 이렇듯 <Minari>는 미국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 정착해 가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서사로, 유럽계 이민자의 이야기를 그린 <대부>(God Father)나, <아이리쉬맨>(Irishman) 같은 영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이민자 영화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 작품에서 다소 고집스런 제이콥도 초반에는 아칸소식 농법을 거부하지만, 차츰 이를 수용하고 현지 문화에 적응해 간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폴과 전쟁미망인 순자는 이 서사의 원경에 한국의 역사가 있음을 암시하는데, 여기서 폴은 제이콥에게 한국 작물이라도 재배지에 맞게 아칸소식으로 심어야 잘 자라고 네가 행복해질 것이라며 아칸소식 농법을 일러 준다.²³

23 이 작품에서 제이콥의 이웃인 백인 폴은 한국전 참전용사로 그가 미국인의 대표자는 아니지만, 아들뿐인 제이콥의 농장이 번성하기를 축원하고, 실제로 제이콥의 농사일을 돕되, 아칸소 땅에서는 아칸소식 농법을 취할 것을 조언한다. 한국계 이주민인 제이콥 일가의 미국에의 안착을 적극적으로 돕는 폴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 이민자를 경계하고 차별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동화를 돕고 그들의 문화적 다름을 일부 수용하기도 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예컨대 모니카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폴은 매운 한국 김치를 담을 뺨뺨 흘리며 맛있게 먹으며, 자신은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또 전쟁 후

제이콥은 담배를 꺼내 물고 잠시 생각에 잠기지만, 폴의 제안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농업용수 확보에서도 제이콥은 서사 초반에는 한국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면서 혼자 해결해 보려 하지만, 후반에는 백인의 도움을 수용한다. 제이콥의 이런 변화는 문화적 차이에 대립각을 계속 세우기보다 현지에 동화되어 가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 가는 것이 이주민의 삶임을 〈Minari〉를 통해 리 아이작 정 감독은 조용히 말하고 있는 셈이다.

4. 닫는 말: 부드러운 이민서사, 강한 가족서사

이 글은 리 아이작 정 감독의 영화 〈Minari〉의 서사 구성을 주요 인물 중심으로 살피고, 그로써 이 작품의 의미를 꼼꼼히 이해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서사의 근간인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의 갈등은 각기 성실성과 가족애에 바탕을 둔 타당성 있는 입장 차에 의한 것이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제이콥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 리스크(risk)를 지고서라도 모험을 감행하려 한다. 이는 쓸모를 입증해야 하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남성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며, 개척자적인 용기와 도전에 높이 평가하는 미국식 가치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또 평생을 지하실 같은 곳에 갇혀 병아리 감별만 하며 살 수는 없다는 항변이나 자식들에게 뭔가를 한 번쯤 시도한 아빠이고 싶다는 바람도 농장 개척의 또 다른 이유이다. 하여 아칸

유층에 아직도 시달리는 데이빗의 외할머니를 위해 기도를 해 주는 등 제이콥 일가의 일을 성심껏 돕는다. 농장 수확물의 판로가 막힌 때에도 제이콥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낙관적인 이야기로 그를 격려한다. 이렇듯 폴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서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로, 제이콥 일가의 조력자로서 이 영화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탓에 동네 꼬마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그는 제이콥 일가의 미국 안착을 돕는 선한 이웃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런 백인 폴에 대한 설정에는 이민 2세인 리 아이작 정 감독의 일가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이주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다 하겠다.

소주에 에덴 같은 농장을 개척하려는 그의 도전은 그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운명이자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인 것이다. 반면 모니카는 모험보다 가족의 이산을 막고 아들 데이빗의 안정적인 치료를 급선무로 여기는 안정 지향의 여성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평생을 병아리 감별 일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토네이도의 위험 속에서 은행 빚도 늘어만 가고 또 실패하면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는 위험까지 안고서 굳이 그런 모험을 감행하고자 하는 제이콥의 도전이 그녀로서는 불안하기만 하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제이콥의 말이 그녀로서는 못내 섭섭하고 자기중심적인 것만 같아 속이 상한다. 이런 모니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게 묘사되어 있어, 이 영화의 뼈대인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의 갈등은 관객의 공감을 끌어내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 영화는 모니카의 엄마 순자가 한국에서 오면서 서사가 활기를 띠는데, 순자는 앤과 데이빗을 돌보며 딸의 부부를 돕는다. 매사에 낙천적이고 위트가 있는 외할머니 순자는 푹푹한장난꾸러기 손자 데이빗과 티격태격하며 개성과 언어,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조금씩 수용해 가며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쌓아 간다. 이 영화에서 순자의 역할은 매우 큰데, 데이빗과의 티격태격함으로 영화의 소소한 재미를 더해 주고, 전반적으로 서사를 밝고 따뜻하게 순화시킨다. 순자가 낸 화제는 결과적으로 제이콥 일가의 이산을 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순자는 딸네 부부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역할도 한다. 여기서 순자로 분한 한국배우 윤여정의 프로토타입(prototype)화되지 않은 할머니 연기는 영화의 흐름을 리얼하고도 편안하게 만드는 데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미국 내 한국계 이민자 서사이자 보편적인 맥락에서의 가족서사이기도 한 <Minari>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아작 정 감독이 자신의 유년기 경험을 영상화하면서 부모를 서사의 중심에 배치하고 위아래로 할머니와 자신(데이빗)을 배치하되 데이빗의 관점에서 스토리를 전개한 작품이다.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의 수평적인 대립과 손자 데이빗과 외할머니 순자의 조손 간의

상호적응과정이 서사의 근간인데, 이 작품의 따뜻한 분위기는 무엇보다도 데이빗에 해당하는 감독이 이민 1세대인 자신의 부모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분투하고 헌신해 온 세월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헌정작으로 〈Minari〉를 만들었음에 기인한다. 한국계 이민서사에서 보편적인 가족서사로 자연스럽게 이행해 가는 이 작품은 4인의 주요 인물의 밸런스와 동양화 같이 맑고 청량감 넘치는 화면구성, 에밀 모세리(Emile Mosseri, 1985~)의 잔잔하고도 사색적인 음악이 잘 어우러져 작품의 완결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계인 제이콥 일가는 미국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칸소식 농법을 점차 수용해 간다. 이로써 〈Minari〉에서 리 아이작 정 감독이 제시한 이민자의 모습은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머조리티(majority) 문화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자연스레 현지에 동화되어 가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어느 정도 지켜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서사로서 이 작품은 가족 간의 돌봄과 사랑을 이야기한다. 제이콥이 낮에는 병아리 농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농장 일을 하는 것이나, 모니카가 아픈 데이빗을 돌보며 병아리 감별일과 집안일을 하는 것, 외할머니 손자가 낫선 이국땅 시골에 와서 손자를 돌보는 것, 모니카가 치매기가 있는 친정어머니를 돌보는 것, 모니카가 창고(barn) 화재로 위기에 처한 제이콥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가족애의 표현이자 실천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이자, ‘서로를 돌보는 관계’임을 이 영화는 조용히 전하고 있다.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이산과 동화라는 통상적 이민자 서사의 무거움을 걷어 내고, 따뜻하고 맑고 유머러스한 이민자 영화의 새 모델을 제시한 이 작품은 이로써 자연스럽게 이민자 서사에서 보편적인 가족서사로 이행해 간다. 제이콥과 모니카의 부부갈등과 장난꾸러기 손자와 개성 넘치는 할머니의 티격태격함을 통해 이민자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 추구와 그 과정에서의 난관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으로서의 가족 간 사랑과 유대감을 제시함으로써 이민자 가족영

화 <Minari>는 이주민 가족이 새로운 땅에서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밤의 품'²⁴을 꿈꿀 수 있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나경(2022), 「할리우드의 제국주의적 응시: 영화 <미나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영화 연구』 15(1), pp. 123-146.
- 강성률(2021), 「기독교적 토대 위의 <미나리>」, 『영화평론』 33, 한국영화평론가협회, pp. 92-95.
- 강옥희(2021), 「이산·동화·개척의 서사: <미나리>」, 『국제한인문학연구』 30, pp. 97-121.
- 김종석(2021), 「병아리 감별사 직업,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남다」, 『융합경영리뷰』 25, pp. 29-31.
- 류재형(2021), 「<미나리>의 국적성과 내셔널 시네마」, 『영상기술연구』 36, pp. 165-188.
- 손상희(2017), 「미국이주 한인가계의 재무적 과제와 극복 경험 연구」, 『소비자정책교육 연구』 13(3), pp. 187-212.
- 안미영(2021), 「영화 <미나리>에 구현된 '가족 신화' 분석: 토포필리아의 구현과 가장(家長)의 수행성」, 『비평문학』 81, pp. 99-126.
- 안수환(2021), 「영화 <미나리>에 병존하는 신성(神性)과 인간성: 영화 속 다중 매체 간 상호작용」, 『서양음악학』 24(2), pp. 177-200.
- 유제우(2021), 「영화 <미나리> 속 '공간과 오브제'의 이미지 상징」, 『글로벌 창 의 문화연구』 10(1), 글로벌창의산업연구센터, pp. 87-96.
- 이종혁(2020), 「영화에서 주제와 인물의 상관관계 연구: 극영화의 주관적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유봉근(2022), 「자전적 영화로서 정이삭의 <미나리>(2020) 연구: 벤야민의 '삶을 구성하는 힘' 개념을 중심으로」, 『아시아영화연구』 15(1), pp. 209-240.
- 김성현(2021), 「'미나리' 실제 모델은 지금도 그 농장을 지킨다」, 『조선일보』, 2021년 4월 26일자.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1/04/26/JFIITYPQHJBBTPRRMCZW5OG5UI/(접속일: 2022.3.4.).
- 김소리(2022), 「인스 최, 제니 한, 리 아이작 정, 한국계 크리에이터 스포트라이트, 왜?」, 『일요신문』, 2021년 3월 17일자,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5707(접속일: 2022.2.4.).

24 작은 따옴표 부분은 영화 끝부분에 삽입된 한예리가 부른 OST <rain song> 가사의 마지막 구절임.

- 박중호, 「병아리 감별사」, 『부산일보』 2021년 3월 17일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718520946271> (접속일: 2022.7.10.).
- 조지영(2020), 「25th BIFF: ‘미나리’ 감독 “자전적 이야기, 소설 ‘마이 안토니아’ 영감받았다”」, 『스포츠조선』, 2020년 10월 23일자, https://m.sportschosun.com/news.htm?id=202010230100182800012336&ServiceDate=20201023#_ace (접속일: 2021.3.7.).
- KBS, 〈다큐 인사이드 1회 윤여정 편〉, 2021.4.29. 방영분 내용 중. 「Katie Couric Interviews the Director and Star of “Minari”」, <https://www.youtube.com/watch?v=6yDOUXU9m1M> (접속일: 2022.1.30.).

원고 접수일: 2022년 7월 12일, 심사 완료일: 2022년 8월 9일,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9일

ABSTRACT

An Essay on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Movie *Minari* (2020) through Character Analysis

Kim, Mee Young*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s in Lee Isaac-Jung's movie *Minari* (2020)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e of narrative and the meanings of this film. The film is based on the conflict between Jacob (the husband) and Monica (the wife), and the conflict between Sun-ja (the grandmother) and David (the grandson). Jacob as a Korean husband and dad tends to be a little bit patriarchal and dogmatic. However, he has a spirit of challenge, sincerity, and wishes to pursue the American dream for his family's future. Monica is diligent and calm, wishing for her son's health and for the family to live together. The couple are at odds when Jacob sets up a farm in Arkansas. However, both are devoted and sincere to their families. In this movie, the advent of Sun-ja, Monica's mother is the signal for the full-scale development of the narrative. Although Sun-ja is a war widow, she is optimistic and enjoys learning foreign cultures and languages. David, a 7-year-old boy, is naughty, but smart and sociable. Sun-ja and David gradually build ties as a family as they quarrel due to cultural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Sun-ja, who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Hongik University

suffers from dementia, sets a barn for crops on fire, but this incident brings the Jacob family together. The film starts with an immigration narrative and progresses to a family narrative, and the natural acting of Yoon Yeo-jeong, who plays Sun-ja, leads the play brightly and flexibly. The balance of the four characters in this movie provides completeness. The theme of the process of overcoming difficulties of immigrants and the discovery of the value of family love adds to the public empathy of the film, along with the symbolism of the title ‘Minari’, which means immigrant families.

Keywords *Minari*, Lee Isaac-Jung, Character, Immigration Narrative, Family Narrative